

글로벌 기후기술협력 동향 보고

2017.6.13



1 기후기술 동향

1. UNFCCC 기술메커니즘 관련 기구

구분		내용
CTCN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원기관 총 288개 ('17.6.9일 현재) (CTCN,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개*기관 가입승인 * UK(1), 스페인(1), 남아프리카 공화국(1), 핀란드(1), 덴마크(1), 콜롬비아(1), 독일(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DE 총 158개 ('17.6.9일 현재) (CTCN,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티모르 NDE(환경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FAN*, 「아시아 지역 기후변화 및 청정에너지를 위한 프로젝트 및 투자개발」 제안서 작성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수: PFAN 기후-투자 관리 시스템 제출 - 제출일: '17.7.19일 18:00 (중앙유럽 서머타임 기준) * PFAN (The Private Financing Advisory Network): 경제성분석,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투자 및 파이낸싱, 사업계획 준비, 투자자 소개 등을 중심으로 수요 및 공급 측면에서 개도국과 신흥국 기들의 SME가 기후금융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요인들을 지원함 (CTCN, 6/9)
GCF	본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기 폐기물 에너지화」, 유엔 대양 회의 (UN Ocean Conference) 사이드이벤트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내용: 군소도서국가의 통합 폐기물 관리 해결방안 - 일 시: '17.6.8(목) - 장 소 미국 뉴욕, UN 컨퍼런스 빌딩, 컨퍼런스 룸 A - 주 최: UNIDO, Caribbean Centre for 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CCREEE), SIDS Sustainable Energy and Climate Resilience Organization (SIDS DOCK), Caribbean Community (CARICOM) Energy Program (CTCN, 6/9, Side Event, 6/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도 친환경 복합공간 조성, 국제 기후변화 지식경제 메카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CF 이사회 외국인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GCF 관련 기업/연구소를 송도에 집적화 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 (경인일보, 6/2)

		<p>○ 7월 이사회, '미국의 공여금 부담 철회관련 논의 예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4~6일 송도에서 개최되는 이사회에서는 전체 공여금의 19%에 달하는 20억 달러의 공여철회를 선언한 미국 결정에 따른 영향과 향후 재원조달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 <p style="text-align: right;">(etnews, 6/4)</p>
	<p>국별</p>	<p>○ 인천시, '녹색환경금융도시' 조성 난항 예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이 약속한 공여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면, GCF 사업과 인천이 추진 중인 글로벌그린경제 콤플렉스의 건립에도 차질 우려 <p style="text-align: right;">(인천일보, 6/5) (뉴시스, 6/2)</p>

2. 기타 국제기구 및 기관

구분		내용
국내	금융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한국에너지공단-신용보증기금, 'ESS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체결' ('17.6.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할분담: 에너지공단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기업 추천), 신보(대출금액의 90% 보증), 국민은행(사업자 부담 보증료의 연 0.2%의 3년간 우대, 대출금리의 최대 1% 우대를 지원) <p style="text-align: right;">(이데일리, 6/9)</p>
국외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주석,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기후변화를 주제로 대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진핑 주석은 트럼프의 파리협약 탈퇴를 강력 비판했던 브라운 주지사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양국간 협력방안을 논의 - 중국 정부가 미대통령을 거치지 않고 주지사와 별도논의를 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이는 중국의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 향후 미국의 대응이 주목됨 <p style="text-align: right;">(가디언, 6/6)</p>

3. 기후기술정책

구분		내용
국내	산업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음브즈만*,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및 제도를 개선을 관계 부처에 건의' ('17.6.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원 보호구역 또는 농지에서의 태양광 설치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 및 제도 개선과제를 관계 부처에 건의 * 기업의 권익을 대변하고 현장 규제애로를 개선하는 중소기업 규제개선 및 애로해소 독립 전문기관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환경 및 경쟁력 저해요소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연합뉴스, 6/4)
	산업통상자원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통상자원부, '제 8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및 제2차 미션이노베이션장관회의 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에너지 확산' 및 '에너지 효율향상'을 주제로 그간 미국 주도의 운영방식을 탈피하고 각 회원국이 최소한 하나 이상의 청정에너지장관회의 활동(이니셔티브, 캠페인 등)에 참가하는 '공동의 리더십(shared leadership)' 의제를 집중 논의 - 산업부 장영진 에너지지원정책국장이 참석하여 올해 한국이 미션이노베이션** 선언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알리고, 향후 공공부분 투자확대와 더불어 회원국 간 기술협력 강화방안을 논의 * 2010년 미국 주도로 2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클린에너지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국, '14년 서울에서同 회의 개최)했으며 현재는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등을 포함 24개국이 참여 ** COP21 파리총회('15.11월)를 계기로 청정에너지 기술의 공공부문 연구개발(R&D) 투자를 5년 내(~'21년) 2배 확대하기로 한 선언으로, 현재 미·영·일·중 등 23개국 참여 중 (환경미디어, 6/9)
국외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트럼프 대통령, 파리협정 탈퇴 공식화 ('17.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퇴 의사 표시와 함께 재협상 여지가 있음을 공표하였으나, 독일·프랑스·이탈리아는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 일축 (가디언, 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파리협정 불참 시, 국경탄소조치로 대응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한 연구는 국제통상법에 의거해서 미국산 제품에 대해서 배출량을 근거로 수입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출보조금을 부과하는 다자간 국경탄소조치(Multilateral Border Carbon Adjustments)의 도입을 제안 - 본 연구는 다자간 국경탄소조치가 파리협정 6조 1항의 협력적 접근방식이나 6조 4항의 지속가능발전매커니즘과 연계될 수 있다고 제시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blog, 5/22)

	일본	<p>○ 일본-몽골 간 JCM 사업 2개 신규 등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5.26일 일본-몽골간 추진되어온 사업 2건, '몽골 울란바토르 교외지역 2.1 MW급 태양발전설비 건설(MN003)'과 '몽골 Darkhan 시 10 MW급 태양 발전(MN004)*' 사업이 JCM 레지스트리에 최종 등록 - 현재까지 등록된 JCM 사업은 18개, 등록된 방법론은 35개, 재정지원 받은 사업은 105개로 집계되며, 일본정부는 JCM 제도를 통해 2030년까지 총 5천만~1억 톤의 배출권 확보를 예상 <p>* Darhan시 태양발전 사업에는 일본 Sharp사의 기술이 적용되며, 2030년 까지 총 157,000 톤의 CO2 배출량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p> <p style="text-align: right;">(JCM 사무국, 5/26)</p>
	일본	<p>○ 일본, '신규 JCM 방법론관련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JCM 사무국은 '17.5월 제출된 '베트남 어선 LED 조명설비 설치' 방법론(ID_VN_PM010) 관련해서 '17.6.2~16일 동안 공개 사전검토 및 의견수렴 기회를 제공 <p style="text-align: right;">(JCM 사무국, 6/2)</p>
	EU	<p>○ EU ETS 비대상부문, 배출량 감축을 위한 노력분담규정 통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5.30일 EU 의회는 EU ETS에 포함되지 않는 수송, 건물, 농업, 폐기물 부문을 대상으로 2021~2030년 회원국별 감축목표를 규정하는 노력분담규정(ESR, Effort Sharing Regulation)* 초안을 통과시킴 - 이를 통해 4억 톤의 CO2 배출량 저감을 예상 <p>* '09년 EU는 EU ETS 비대상부문에 대한 회원국별 2013~2020년 감축 목표를 권고하는 노력분담결정(ESD, Effort Sharing Decision)를 발표하며 있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16.7월 노력분담규정 초안을 발표. 권고 형식의 '결정'에 비해 '규정'은 바로 EU 회원국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져 법적지위가 격상</p> <p style="text-align: right;">(Energylivenews, 5/30)</p>
	기타	<p>○ 탄소세에 관한 고위급 위원회 보고서, 배출권 톤당 탄소세 인상 촉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5.29일 세계 정상급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는 보고서(Report of the High-Level Commission on Carbon Prices)* 발간을 통해 이산화탄소 배출권 1톤당 탄소세를 2020년까지 40~80 달러로, 2030년까지 100 달러로 증가시키는 것을 제안** - 탄소세 인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총 4조 달러의 기금 확보가 가능하며, 이는 파리협정의 목표 달성과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적·사회적·생태적 손실을 방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 <p>* 본 보고서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Joseph Stiglitz와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 Nicholas Stern 등 세계 정상급 경제학자 13인이 참여하였고,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후원</p> <p>** 현재 EU 탄소세는 톤당 \$6 이하인 실정</p> <p style="text-align: right;">(보고서 원문보기, 5/29)</p>

□ 파리협정 비준 현황 (2017.6.9.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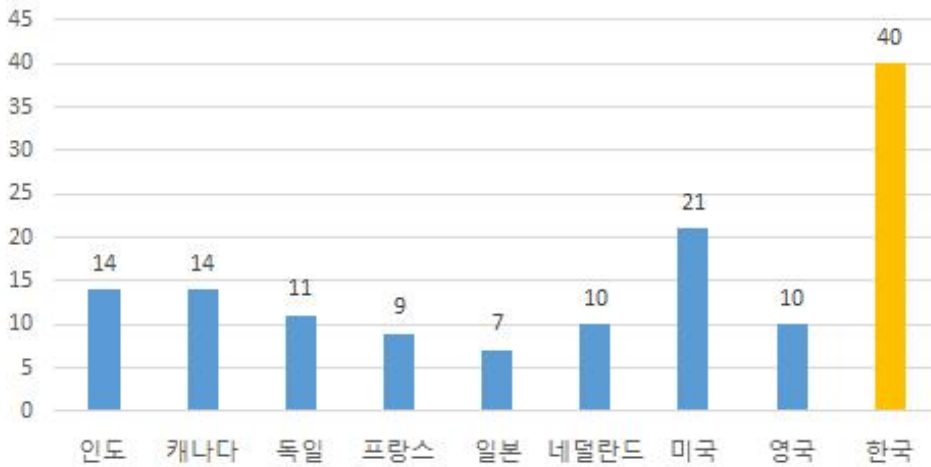
- 197개 당사국 중 148개국 비준

UNFCCC 홈페이지 (http://unfccc.int/paris_agreement/items/9444.ph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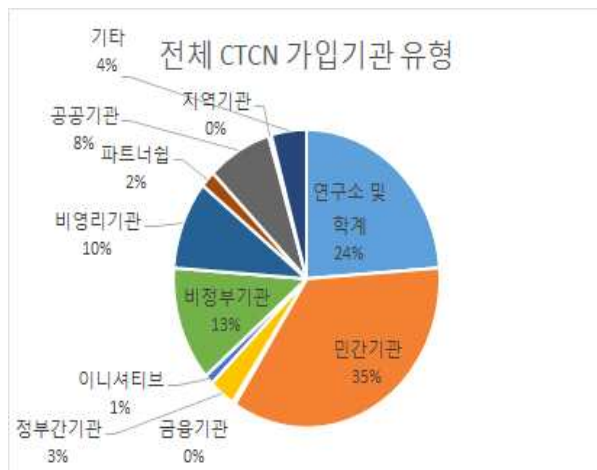
□ CTCN 가입기관 현황

- 총 288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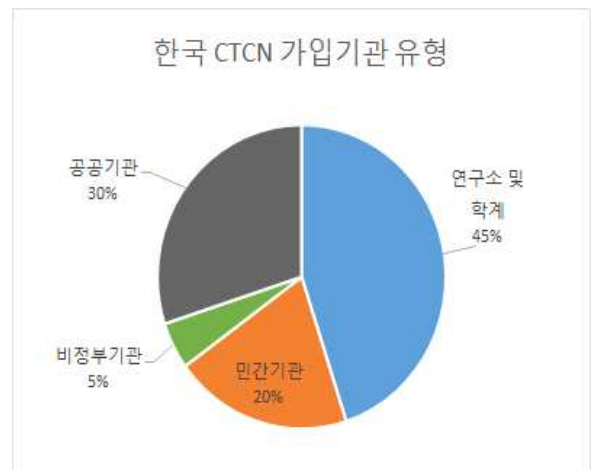
각 국별 가입기관 현황



□ CTCN 가입기관 유형 (2017.6.9. 현황)



<CTCN 전체 288개 가입기관 유형>



<한국 40개 가입기관 유형>

- 전체 281개 CTCN 가입기관의 조직유형 중, 민간부문이 전체 99건으로 35%의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구기관이 67건(24%), 비정부·비영리부문 NGO와 NPO가 각각 35건(13%), 27건(10%) 순으로 비중을 차지
- 반면, 한국은 총 가입기관 40건 중, 연구부문의 기관 가입이 18건(45%)으로 압도적으로 높으며, 다음으로 공공부문 조직이 12건(30%)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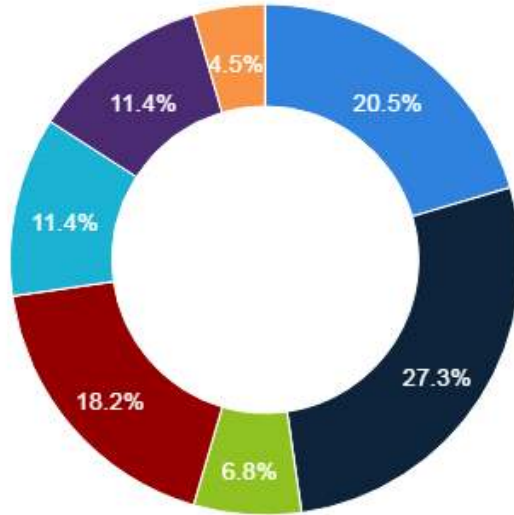
□ 한국 CTCN 가입기관 (2017.6.9. 현황)

연번	기관명	회원번호
1	한국에너지공단(KEA)	N0046
2	한국생산기술연구원(KITECH)	N0049
3	녹색기술센터(GTC)	N0056
4	한국환경공단(KECO)	N0086
5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	N0089
6	한국화학연구원(KRICT)	N0098
7	한국전기연구원(KERI)	N0113
8	한국기계연구원(KIMM)	N0123
9	재료연구소(KIMS)	N0173
10	국가핵융합연구소(NFRI)	N0176
11	생명공학연구원(KRIBB)	N0179
12	한국표준연구원(KRISS)	N0181
13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N0185
14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N0188
15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N0189
16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N0190
17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N0192
18	철도기술연구원(KRRI)	N0195
19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N0194
20	선진 E&A	N0196

21	한국천문연구원(KASI)	N0200
22	광주과학기술원(GIST)	N0201
23	기술보증기금(KIBO)	N0203
2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N0205
25	포항공대(POSTECH)	N0212
26	삼일회계법인	N0224
27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N0225
28	한국전력공사 (KEPCO)	N0232
29	벽산엔지니어링	N0235
30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N0237
31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N0238
32	한국수자원공사 (K Water)	N0240
33	ECO &PARTNERS	N0252
34	벽산파워	N0261
35	푸른아시아	N0264
36	한국임업진흥원(KOFPI)	N0277
37	FORCEBEL	N0280
38	(재)기후변화센터	N0283
39	포스코에너지	N0284
40	KPMG Korea	N02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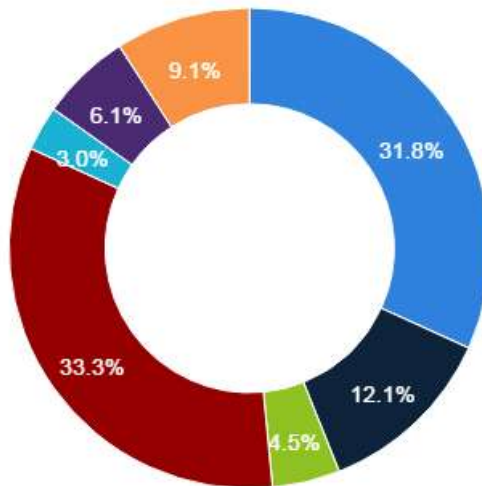
□ CTCN Technical Assistance 사업 현황 ('17.6.9 현황)

- 제출된 TA : 187개
- 계획 수립 (Design) 혹은 이행 중 (Implementation)인 TA : 105개 (감축관련 TA-43.5%, 적응관련 TA-26.6%)



■ Cross-sectoral ■ Agriculture and forestry ■ Infrastructure and Urban planning ■ Water
■ Early warning and Environmental assessment ■ Coastal zones ■ Human health

〈제출된 TA 중 감축 관련 주제 분포 현황〉



■ Energy efficiency ■ Waste management ■ Cross-sectoral ■ Renewable energy ■ Transport
■ Industry ■ Agriculture

〈제출된 TA 중 적응 관련 주제 분포 현황〉